◈ 6강: 헤겔 vs 바디우
: 사랑은 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인가? ◈

"난 널 사랑해"에는 여러 가지 사교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다. "난 사랑하지 않아요." "난 당신의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등등. 그러나 진짜 거절은 "대답 없음"이란 말이다. 나는 청원자로서뿐만 아니라 발화자로서도 (적어도 그 의례적인 표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부인되기 때문에 더 확실히 취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부인된 것은 내 부탁이 아닌, 내 실존의 마지막 수단인 내 언어이다. 내 부탁만 거절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다렸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질문할 권리마저도 빼앗겨버린 나는 영원히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바르트(R. Barthes), 『사랑의 단상(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1. 사랑의 객관성을 꿈꾸다.

◈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사랑의 감정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이 통일은 아직 아무런 객관성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는 자녀를 통해 비로소 이런 객관성을 갖게 되며 또한 바로 이들 자녀를 통해 결합의 전체를 목도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통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녀를 통해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마침내 두 사람은 자녀에게서 다름 아닌 그 자신들의 사랑을 직감하게 된다.

-『법철학 강요(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헤겔은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아직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역으로 두 사람의 주관적인 내면, 혹은 사랑에 깃든 자유에 대한 헤겔의 두려움을 직감할 수 있다. 헤겔에게 있어 자식이란 존재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헤겔의 논리를 좀 더 살펴보자.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듯이 남편과 아내는 자식을 사랑할 것이다. 아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리고 남편도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데 자식은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랑이 객관화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은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셈이고 아내 역시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셈이라는 말한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 헤겔의 가족 변증법은 정말 타당한 것일까? 헤

겔은 “두 사람은 자녀에게서 다름 아닌 그 자신들의 사랑을 직감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헤겔의 이 표현은 “두 사람은 자녀에게서 다름 아닌 그 자신들의 과거의 사랑을 직감한다”라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식을 낳은 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자식은 사랑의 객관적 모습이라기보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두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두는 족쇄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결혼과 자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보장해주는 어떤 확실한 역할도 할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결혼과 자식은 타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일시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그 동안에조차 내가 관계하는 타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과거의 그 사람은 아닐 것이다.

2. 사랑은 둘이 만들어가는 혁명적 경험이다.

◈ 사랑이란 그 자체가 비-관계, 탈-결합의 요소 속에 존재하는 이 역설적 둘의 실재성이다. 사랑이란 그런 둘에의 '접근'이다. 만남의 사건으로부터 기원하는 사랑은 무한한 또는 완성될 수 없는 경험의 피륙을 짠다.-
『철학을 위한 선언(Manifeste pour la philosophe)』

▶ 사랑과 결혼에 대한 헤겔의 판타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결국 비극으로 결말을게 된다. 여기 맺서 사랑이 함축하고 있는 주관성이란 것은, 사랑과 관련된 주체들의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타자의 자유를 긍정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타자의 주관 혹은 내면을 긍정하지 못한다면, 사랑에 남겨지는 것은 참담한 비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디우는 ‘비-관계’나 ‘탈-결합’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일 것이다. 기존에 별다른 의식 없이 영위하던 모든 일상적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둘은 오직 둘로서만 마주볼 수 있게 된다. 혈연, 학연, 지연, 심지어는 민족이라는 관계마저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둘은 둘로서 마주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만들어가는 경험의 피륙은 기존의 관계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헤겔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는 자유의 사건으로서의 사랑을 결혼과 가족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관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인간의 사랑과 자유가 지닌 혁명적 성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디우의 말대로 둘의 경험으로서의 사랑은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 숙명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갈망했던 많은 사상가들에게 둘 혹은 자유의 진실을 가르쳐준 연인들이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마치 사르트르에게는 보봐르가, 그리고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에게는 아샤 라시스(Asja Lacis, 1891-1979)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